

[단독] 흥기난동 시한폭탄 된 ‘그들’...학폭·가정학대가 만든 외톨이었다

입력 2023.08.10. 오후 1:48 수정 2023.08.10. 오후 3:12



1940명 대상 ‘청년기 사회적 고립’ 논문
학폭·학대 등 폭력적인 환경 노출됐다면
고립 청년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져
“가정내 폭력·정신건강 개인문제로 치부”

연이은 무차별 흥기 난동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들이 외톨이 상태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알려지며 ‘고립 청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성장기에 학교 폭력이나 가정내 학대를 받은 이들이 고립 청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최근 복지학계에 따르면,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팀(최하영 황성결)은 최근

‘아동청소년기 역경경험의 유형과 청년기 사회적 고립: 대한민국의 사례’
 ((Pattern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ocial isolation in young adulthood : Evidence from South Korea)’ 논문을 발표했다.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19~34세 청년 19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리뷰(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에 게재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연구는 국내 청년들이 성장기에 겪은 어려움(역경)을 4개 분야로 구분한 뒤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에 어떤 어려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했다. 성장기 역경은 각각 ‘높은 학대 및 가정내 정신질환 경험’, ‘경제적 어려움과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모든 역경 경험’, ‘적은 역경 경험’으로 나뉘었다. 학대는 가정뿐 아니라 학교와 이웃으로부터의 폭력도 포함됐다. 대상자의 70% 가까이는 역경 경험이 적은 수준이었지만, 23%는 경제적 어려움과 상실을 겪었고, 학대와 가정내 정신질환을 경험한 집단은 2.6%였다. 3.3%의 청년들은 모든 역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기 역경경험의 유형과 청년기 사회접 고립: 대한민국의 사례’

분석 결과 모든 역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학대와 가정내 정신질환을 겪은 집단이 고립에 빠질 가능성이 컸다. 경제적 어려움, 상실보다는 폭력에 노출되거나 가

정내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와 같은 환경에 빠지는 경우 ‘고립 청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폭력적인 환경이 모든 종류의 성장기 역경을 겪은 것만큼이나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같은 어려움이 여전히 ‘개인적 문제’로 치부돼 복지시스템을 통해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 고립청년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것은 수년간 이어졌지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는 지난달에야 처음으로 착수됐다.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중 정부의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8명에 1명꼴 수준이다. 연구진은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 빈곤 등 문제는 여전히 개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개인적 문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청년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적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심리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나 학교폭력과 같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70936>
